



주 제:	“ 유혹에...”	“사순 제 1 주일“	2010 년 2 월 21 일
복음 묵상:	[루가 4,1-13]	[신명 26,4-10]	[로마 10,8-13]

회개와 보속으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여, 다가올 부활 축제를 준비하는 사순시기입니다. 사십일 동안 단식하신 예수님 앞에 악마의 유혹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유혹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사순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온갖 유혹을 물리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욕구에 대한 거저된 해결책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혹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올바른 해결책과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만 유혹은 달콤합니다. 유혹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서 심지어는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유혹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혹은 결국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유혹을 피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올바른 해결책과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악의 손길은 갖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욕심을 미련 없이 버림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안동 김정현 신부님 강론중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주 성숙 리따 자매님이 지난 수요일 한국에 계신 부친이 위독하시다는 급보를 받고 급히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내려 주시길 기도중에 꼭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원 루치아노 형제님이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즐기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가대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김 베네딕도 형제님이 아직도 완쾌되지않은 상태에서 회복중에 있습니다.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의 도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을 빌어 주십시오.
- 멜라니아 자매님이 병간 잘 하시고 돌아오셨으나, 마리나 공소의 성가대를 위하여 이번 부활절은 그곳 공소를 도우기 위하여 문요셉형제님과 함께 당분간 산호세는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지만, 주님의 도구를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아직도 장기/ 투병중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사항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및 미사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십자가의 길과 미사가 있습니다.
또한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아침 미사는 없습니다.
- 북가주 카톨릭 성경대학 5학기
일시 : 2월 21일(일) 4:00-6:00 pm
강사 ; 예수회 송봉모 신부님
장소 ;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 희아와 함께 하는 사순 음악피정
일시 ; 3월 10일 (수) 오후 7시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세레밍; 히야친타)” 양이 음악 피정이 있습니다.



그때에 1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2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3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 주며, 6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7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8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9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밀로 돌을 던져 보시오. 10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11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12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13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1분 명상

“용서의 기쁨.”

-이해인-



산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용서하는 용기
용서받는 겸손이라고 일기에 씁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것은 용서가 없기때문이라고
기쁨이 없는것은 사랑이 없기때문이라고 나직이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네요,
일곱번씩 일흔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마음에 드는 사람뿐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법을
배우라고-
이렇게 노력하다보면 하늘문 가까이 이를 수 있겠지요,

수백 번 입으로 외우는 기도보다 한번 크게 용서하는
행동이
더 힘 있는 기도일때도 많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오해해도 용서할 수 있기를
누가 나를 속이고 모욕해도 용서할수있기를
간절히 청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용서하는기쁨,용서받는기쁨입니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루카 9,62)

“No one who sets a hand to the plow and looks to what was left behind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